

여성의 자기대상화, 자기조절초점과 사회참여의 관계*

신흥임(辛洪任)**

논문 요약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활용되는 대상으로 보는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는 성 불평등 합리화 경향 및 사회 참여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기대상화와 사회 참여의 관계를 자기조절초점의 개인차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여대생 160명을 대상으로 자기대상화의 경향, 성 불평등과 연관된 시스템 합리화경향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사회참여의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여대생 90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초점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수행하도록 한 후, 작문과제를 통해 자기대상화를 상태변인으로 조작한 실험조건(예: 성형수술 계획을 작성함)과 통제조건(예: 여름방학 계획을 작성함)에서 성 불평등의 시스템 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의 경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기대상화의 실험조건에서는 통제조건보다 여성의 외모가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과 사회 불평등 합리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 불평등 합리화경향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의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성의 자기대상화가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자기대상화조건에서 여대생의 향상초점 우세성이 높을수록 성 불평등의 시스템 합리화 경향이 낮았으며, 사회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 대상화가 유도된 상황에서 왜 어떤 여성들은 사회의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기 보다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더 선호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논의에서는 자기대상화, 자기조절초점 및 사회참여의 관계를 토론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루었다.

주요어 : 여성, 자기대상화, 시스템합리화, 사회참여, 자기조절초점

* 본 연구에 중요한 도움 말씀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 교육중점 전임교원, shin7038@naver.com

1. 서론

심훈(1996)의 소설 '상록수'는 일제 강점시대의 여성 농촌계몽운동가인 채영신을 주제로 한 이야기이다. 김명옥(2017)에 의하면, 상록수의 실제 인물인 '최용신'은 자신의 얼굴이 곰보여서 결혼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의 계몽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는 내용을 일기에 썼다. 최용신의 얼굴이 곰보였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게 된 것을 최용신의 가족들은 안타까워했고, 영화 상록수에서 최용신이 아름다운 배우로 등장했던 것처럼 최용신에 대한 기록에서 곰보라는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비해 최용신의 계몽운동을 기록한 연구자인 김명옥(2017)은 최용신의 외모가 최용신이 농촌계몽운동가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곰보 얼굴에 대한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여성이 사회에서 능력보다 아름다운 외모로 평가된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발견은 아니다. 성영신 등(2009)은 한국 사회에서 아름다운 외모가 대상 인물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외모가 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져 있다(Calogero et al., 2017). 한 여성의 가치가 아름다운 외모만을 기준으로 평가될 때, 여성은 이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외모를 사회에서 소비되는 도구로서 스스로 관찰하며, 대상화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지금까지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연구(예: Kahalon, Schnabel, & Becker, 2018)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는 시각이 여성에게 내면화되어 여성의 자기 대상화를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예: 우울증, 섭식장애)를 발생시킴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여성이 이러한 자기대상화를 벗어나려는 하나의 적극적 시도로 볼 수 있다(이희은, 2018).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기대상화가 사회의 성 불평등인식과 사회활동 참여의향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여성의 자기대상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가 여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킴을 보고하였지만, 이 주제를 확장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다른 연구는 매우 드물다(Kahalon et al., 2018). 자기대상화의 주제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여성을 사회에서 소비되고 활용되는 대상이 아닌, 전인적 존재로서 인식하게 하는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권교육(장원순, 2019), 스스로 자신의 삶에 주체성을 갖게 하는 교육(전해정, 2019) 및 자신의 문제를 초월하여 사회 불평등인식과 사회참여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자기갱신(이경수, 2018)의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자기대상화의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및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심리학분야에서 자기대상화가 여성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사회학분야에서 자기대상화를 유발하는 사회적 구조에만 주목하거나, 혹은 자기대상화에

대한 철학적 논의(권향숙, 2018)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 개인이 자기대상화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성불평등을 인식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적 자료의 수집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교육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 사회 불평등 인식 및 사회참여와 연관된 개인적 및 사회적 변인의 구체적인 관계를 탐색하여 교육현장에 대한 학문적 및 실제적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한 개인은 자기대상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의 불평등을 지각하고, 사회참여에 동기화될 수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여성의 자기대상화와 사회참여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는 한 개인이 자신을 인간으로서 전반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신체일부(예: 얼굴)에만 초점을 맞추어 관찰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활용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지금까지 여성의 대상화에 대한 연구(Calogero, 2013; Kahalon et al., 2018; Puvia & Vaes, 2013; 김완석, 박은아, Sakemoto, 2009; 손은정, 2006; 장지원, 이지연, 장진이, 2012)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는 시각이 여성에게 내면화되어 여성의 자기대상화를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신적 문제(예: 우울증, 신체감시, 수치심, 낮은 자존감) 및 신체적 장애(예: 섭식장애)를 발생시킴을 보고하고 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여성의 자기대상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가 여성의 개인 내적 측면에 끼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였고, 자기대상화의 영향을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Kahalon 외(2018)는 자기대상화에 관한 지난 30년간 연구를 정리하며,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가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여성의 자기대상화와 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되지 않았고, 국외 연구로는 Calogero(2013; 2017)의 연구가 이에 대한 좋은 예시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기대상화 경향이 강해질수록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짐을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여성의 자기대상화 경향이 한 개인이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강해질 것이며, 이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강화시켜, 사회에 대한 비판인식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Calogero, 2017). 따라서 한 여성이 타인과 사회로부터 받아들인 외모중시의 관점은 자신에게 내면화되고,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Calogero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기대상화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으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기대상화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이 불평등을 합리화하면서, 사회참여를 더 적게 하고, 어떤 여성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세분화된 설명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앞서 언급한 최용신의 사례와 미투운동을 볼 때, 여성이 어느 시점에서는 아름다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자기 대상화를 벗어나서, 사회의 성 불평등을 인식하고, 사회참여에 동기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alogero(2013; 2017)의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인이 여성으로 하여금 외모의 영향력을 중요시하던 시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회 불평등을 인식하게 하고, 사회참여 의향을 증가시키는지를 탐색해보려 한다.

2. 여성의 자기대상화, 자기조절초점 및 사회참여

Förster와 Higgins(2005)에 의하면 자기조절초점은 한 개인에게 특정 목표를 제시하며, 행동을 동기화한다. 한 개인은 특정한 자기조절초점을 성향적으로 선호하거나, 또는 상황에서 특정한 자기조절초점이 유발되어 상태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성향적으로 향상초점(promotion focus)을 선호하게 되면, 정보처리에서 지각의 범위가 최대한 확장되며(예: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보는 전역처리), 자신의 이득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갖게 된다. 반면, 한 개인에게 성향적으로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정보처리에서 지각의 범위가 좁혀지며(예: 숲보다는 나무를 먼저 보는 국지처리), 자신의 위험을 최대한 피하려는 목표를 갖게 되어, 안전추구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Avnet과 Higgins(2006)에 의하면, 자기조절초점의 적합성(regulatory fit)은 왜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에 따라 다른 행동이 선택되며, 특정 집단이나 특정 정보를 더 선호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Sassenbourg, BrazyJonas와 Shah(2013)에서는 이득을 최대한 증가시키려는 향상초점은 긍정적 결과와 연관된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는 고권력 집단을 더 선호하였다. 반면, 가능한 위험을 피하려는 예방초점은 손실과 연관된 정보에 더 주목하게 하며, 힘있는 타인에 의해 통제되는 저권력집단을 더 선호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향상초점을 선호하는 개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향상시키고, 이 상황을 더 좋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동기화되며, 예방초점을 선호하는 개인은 가능하면 현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위험을 피하려는데 동기화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향상초점을 선호하는 개인일수록 자기에 대한 이해가 명료하며,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았으며(민지혜, 2017), 조직혁신과 직무몰입(이혜미, 김유미, 2019)이나 사회공익에 대한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정지영, 2017). 반면 예방초점을 선호하는 개인일수록 과제수행상황에서 부정적 결과를 긍정적 결과보다 더 많이 기대하여, 부정기대정서(예: 초조)가 더 우세하였고(오홍석, 조한익, 2015), 자신의 수행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윤, 김은숙, 2008)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선행연구(Förster & Higgins, 2005; Avnet & Higgins, 2006; Sassenbourg et al., 2013)에서 보고한 이러한 자기조절초점의 차이는 개인마다 유사한 자기대상화의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목표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이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 개인의 특정한 자기조절초점이 자기대상화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 가능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성향적으로 향상초점을 선호하는 여성은 자신을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의해 내면화된 관점이 자신의 이득을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이 처한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사회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성향적으로 예방초점을 선호하는 여성은 자신을 자율적, 독립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영향력있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위험이 통제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불평등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참여의 경향이 낮을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및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의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조절초점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 참가자의 성향적 자기조절초점이 자기대상화의 상황에서 성 불평등의 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활동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기대상화와 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구를 통해 검증하려 한다. 첫째, 연구 1에서는 여성의 자기 대상화가 사회의 성 불평등 합리화경향 및 사회참여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예: Calogero, 2013)에서는 여성의 자기 대상화정도가 높을수록 성 불평등과 연관된 시스템 합리화경향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대상화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사회시스템을 합리화하여 지각할 것을 예측한다. 또한 사회 시스템을 합리화하는 경향은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사회활동 참여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을 예측한다. 둘째, 연구 2에서는 실험 조작을 통해 여성의 자기대상화를 유도한 후, 여성의 자기 대상화가 자기조절초점 및 사회참여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Kahalon et al., 2018)에서는 자기 대상화를 개인 내부의 성향(trait)으로 측정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 대상화를 상태(state) 변인으로 조작하여, 자기대상화의 상태가 사회참여 의향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한 개인의 성향적 자기조절초점(향상초점/예방초점)이 자기대상화의 상태에서 사회참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Avnet과 Higgins(2006)에 의하면, 한 개인은 자신의 타고난 성향으로 인해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상태적으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자기조절초점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성향적으로 갖게 되는 향상초점(이득추구) 또는 예방초점(안전추구)이 자기대상화의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사회 시스템의 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두 가지 유형의 자기조절초점을 통해 한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될 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대상화의 상황에서 한 여성이 성향적으로 향상초점

을 갖게 되면, 정보처리에서 지각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시켜(전역처리), 자신의 이득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갖게 된다. 이것은 사회의 성 불평등에 관심을 갖게 하며, 성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다. 반면, 유사하게 자기대상화가 유도된 상황에서도 한 개인에게 성향적으로 예방초점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정보처리에서 지각의 범위가 좁혀지며(국지처리), 자신의 위험을 최대한 피하려는 목표를 갖게 되어, 안전추구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한 여성이 사회 구조를 전반적으로 보기보다는 자기 외모에만 집중하게 하고,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며, 사회참여의 행동을 덜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성향적 자기조절 초점의 차이가 외모에 치중하는 자기대상화, 시스템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대상화와 외모에 대한 신념은 사회의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경향 및 사회 참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연구 1)?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가 여성의 외모를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자기대상화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 시스템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높을수록, 성평등을 위한 사회참여의 경향이 적어질 것을 예측한다.

둘째, 여성의 자기대상화가 유발된 상황에서 향상초점 우세성, 자기대상화, 외모에 대한 신념 및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경향은 사회활동 참여 의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연구 2)? 본 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의 실험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여성의 외모신념, 자기대상화 및 사회의 성 불평등 합리화경향이 더 높을 것을 예측한다. 또한 향상초점이 예방초점보다 더 우세할수록 성 불평등 합리화 경향이 낮아지는 반면, 사회활동 참여의향은 더 높아질 것을 예측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1

1) 연구대상

4년제 대학교의 여대생 160명(평균연령 만 21.76세, 표준편차=3.49)이 다양한 교양수업(예: 뇌과학, 심리학개론, 의사소통기술)을 수강하면서 참가하였다. 이 수업에서는 모두 자기대상화나 성 불평등의 주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1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낮다. 연구참가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31.2%, 3학년 21.3%, 4학년 9.3%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 참가에는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보상을 받지 않았다.

2)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집단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에게 질문지 세트가 제시되었다. 질문지세트는 자기대상화 질문지, 외모 신념에 대한 질문지, 시스템합리화 질문지 및 사회참여 질문지로 구성되었다(부록 참조). 이 4개의 영문판 질문지는 한국어로 번역된 후, 교차번역을 통해 전문 번역인에 의해 문항검수절차를 거쳤다. 참가자는 우선 자기대상화를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이 질문지는 Noll과 Fredrickson(199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에서 연구참가자는 열 개의 항목을 읽고, 각 항목이 자신의 자기개념에 중요한 순서에 따라 0에서 9까지 중복없이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적도록 하였다(0: 전혀 중요하지 않음, 9: 매우 중요함). 열 개 항목 중에서 다섯 개 항목은 겹으로 직접 드러나는, 외모(appearance)와 관련된 항목으로, 여기에는 신체 매력, 섹시함, 신체 크기, 탄탄한 신체 근육, 몸무게가 포함되었다. 다른 다섯 개 항목은 겹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체 능력(competence)과 연관된 항목이며, 건강함, 활기찬 에너지수준, 신체적 조화, 힘의 세기, 강인한 체력이었다. 자기대상화점수는 외모와 연관된 다섯 개 항목의 총점에서 신체 능력과 연관된 다섯 개 항목의 총점을 감하여 산출한다. 총점 범위는 -25점에서 25점까지 변화한다. 총점이 클수록 외모가 신체 능력보다 자기 개념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것은 자기대상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Calogero(2013)의 연구에서는 외모와 연관된 항목과 신체 능력과 연관된 항목의 상관계수가 $r = -.97$ 이었으며, 본 연구의 연구 1에서는 $-.88$ 로 나타났다.

자기대상화 질문지가 완료된 후, 참가자들은 외모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질문지(Forbes, Collinsworth, Jobe, Braun, & Wise, 2007)에 응답하였다. 이 질문지는 참가자가 여성의 외모를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7점 척도에 따라 측정하며, 총 다섯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여성의 예쁜 외모는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Forbes 등(2007)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 알파계수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외모 신념 질문지에서는 총 다섯 개 문항의 총점을 문항 개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 참가자가 여성의 외모를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후 참가자는 성 불평등에 관한 시스템합리화 경향을 측정하는 질문지(Calogero, 2013; Jost & Kay, 2005)에 응답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8개의 문항(예: 남성과 여성에게 부와 행복의 기회가 균등하다)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는 문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9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다. Calogero(2013)가 보고한 내적 합치도 알파계수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시스템 합리화 질문지가 완료되면, 참가자는 사회참여 질문지(Calogero, 2013; Stake, Roades, Rose, Ellis, & West, 1994)에 응답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8개 문항(예: 성평등의 주제를 다루는 워크숍이나 강연에 참가함)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는 최근

6개월 동안 자신이 성평등이나 여권신장을 지지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7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다. Calogero(2013)가 보고한 내적 합치도 알파계수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오천원 상당의 식당쿠폰을 지급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 1에서는 자기대상화, 외모에 대한 신념, 사회의 성 불평등 합리화 경향 및 사회활동 참여의 향에 관한 연구참가자의 자료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1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평균분석을 수행한 후, 자기대상화, 외모 신념, 성 불평등 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기대상화, 외모신념 및 성 불평등 합리화경향이 사회참여정도를 설명하는 변량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2

1) 연구대상

4년제 대학교의 여대생 90명(평균연령 만 23.14세, 표준편차 = 3.65)이 교내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전공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들이었으며, 각각 총 참가자의 56.2%, 28.7% 및 15.1%의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참가자의 학년은 1-4학년까지 골고루 분포하였으며, 이 중 1학년이 전체 학년의 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참가에는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연구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오천원 상당의 학교식당쿠폰을 받았다.

2)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4-5명씩 조를 이루어 집단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에게 작문과제 및 질문지 세트가 제시되었다. 작문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참가자는 우선 자기조절초점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자기조절초점 질문지는 양윤과 김은숙(2008)이 기존의 척도(Lockwood, Jordan, & Kunda, 2002)를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조절초점 질문지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아홉 개 문항은 향상초점과 연관되며(예: 일반적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남은 아홉 개 문항은 예방초점과 연관되었다(예: 일반적으로 나는 인생에서 부정적인 사건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상초점과 연관된 문항 점수의 총합을 문항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점수에서 예방 초점과 연관된 문항 총합의 평균을 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향상초점이 더 우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초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향상초점에서 .82, 예방초점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자기조절초점 질문지가 완료되면, 참가자는 자기대상화의 실험조건(n=52) 및 통제조건(n=38)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어 작문과제를 수행하였다. 자기대상화의 실험조건에서는 선행연구(Calogero, 2013; Kahalon et al., 2018)를 참조하여 참가자에게 자기대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5분 동안 작문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작문과제는 점화(priming)의 한 유형으로서 도입되었다. 점화는 한 개인에게 제시되는 자극이 이와 의미적으로 연관된 일련의 개념을 연상시킴을 통해 정보처리과정과 행동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유도한다(Custers & Aarts, 2010). 예를 들어, 자기대상화의 선행연구(Kahalon et al., 2018)에서는 실험조건에서 성형수술에 대해 작문과제를 하거나, 참가자에게 자신이 거리를 지나갈 때 낯선 남성이 휘파람을 불어대는 상황을 상상하게 하거나(Calogero, 2013), 혹은 참가자에게 수영복을 입게 하는 실험조작에서 자기대상화의 정도가 통제조건(예: 휴가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영복 대신 스웨터를 입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작문과제에서는 연구참가자에게 한국이 미용성형에서 세계 1위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짧은 신문 기사를 읽고, 성형수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요청하였다. 반면 통제조건에서는 대학생이 취업준비와 등록금마련으로 바쁘게 방학을 보낸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읽고, 자신의 방학계획을 적도록 지시하였다. 작문과제가 완료되면, 연구 1과 동일한 질문지세트가 제시되었다. 질문지 세트는 자기대상화 질문지, 외모 신념에 대한 질문지, 시스템합리화 질문지 및 사회참여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이 중 사회참여질문지는 연구 1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자신이 참여한 사회활동에 표시했던데 비해, 연구 2에서는 해당 활동에 향후 자신이 참가할 의향이 있는 정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예: 성 평등의 주제를 다루는 워크숍이나 강연에 참가할 의향). 그 외 문항의 내용은 연구 1과 연구 2에서 모두 동일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 2에서는 자기조절초점, 자기대상화, 외모에 대한 신념, 사회의 성 불평등 합리화 경향 및 사회활동 참여의향에 관한 연구참가자의 자료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2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1

연구 1에서는 자기대상화 경향, 외모에 대한 신념, 시스템 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에 관한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외모에 대한 신념은 자기대상화 경향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198$, $p = .036$. 이 결과는 여성의 외모를 여성의 능력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 강할수록 자기대상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외모에 대한 신념은 시스템 합리화 경향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224$, $p = .004$. 연구 참가자가 여성의 외모를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사회의 성 불평등을 공정한 것으로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외모에 대한 신념은 성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사회활동 참여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203$, $p = .010$. 따라서 여성의 외모가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성 불평등에 반대하는 사회활동에 더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대상화 경향은 시스템 합리화경향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206$, $p = .033$. 따라서 자기대상화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시스템의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 합리화 경향은 사회참여 경향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403$, $p = .000$. 따라서 사회의 성 불평등을 공정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성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사회활동에 적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기대상화경향과 사회참여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 = -.083$, $p = .391$. 연구참가자가 자신의 신체를 대상화하는 경향이 높아도 이것이 성 불평등에 반대하는 사회활동 참여의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에서 주된 관심사는 외모에 대한 신념, 자기대상화 및 시스템합리화 경향이 사회참여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 2와 같이 외모에 대한 신념, 시스템 합리화경향 및 자기대상화는 모두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이하의 범위에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사회참여의 총 변량에서 14.4%를 설명하였다. 외모에 대한 신념과 시스템합리화 경향이 유의하게 사회참여에 영향을 끼친 반면, 자기대상화는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의 결과는 Calogero 등(2017)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연구 참가자가 여성의 외모를 능력보다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자기 대상화 및 사회 시스템의 합리화 경향이 높아지며, 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사회활동 참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선행연구(Calogero, 2013; 2017)에서 자기대상화와 사회활동 참여의 정도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으로 자기대상화의 상황적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연구 1에서는 자기대상화를 개인차변

인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개인성향과 상황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평소에 자기대상화경향이 높은 개인이어도 상황에 따라 자기대상화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 1에서 자기대상화와 사회참여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연구 1에서는 자기대상화와 사회참여의 관계에 개인의 동기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황적으로 자기대상화를 유도하면, 한 개인의 자기조절초점에서 예방 초점(국지처리)이 향상 초점(전역처리)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어, 사회의 성 불평등에 대한 전반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어렵고, 이것은 사회참여를 동기화하는데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기대상화가 유도하는 상황에서도 한 개인에게 성향적으로 향상초점이 예방 초점보다 전반적으로 더 잘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서 유도된 자기대상화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자기대상화의 상황에서도 향상초점이 예방초점보다 더 잘 활성화되어,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갖게 되고, 사회참여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연구 2에서는 자기대상화의 상황에서 한 개인에게 성향적으로 더 잘 활성화되는 자기조절초점의 차이가 성 불평등 문제의식을 갖는 정도와 사회참여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요약하면, 연구 1에서는 외모에 대한 신념, 자기대상화 및 시스템합리화 경향을 측정하고, 이 변인들이 사회참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개인은 상황에 따라 다른 태도를 갖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향후 자신이 취하게 될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변인과 상황변인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 2에서는 한 개인에게 자기대상화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실험조작을 통해 자기대상화를 유발하고, 자기대상화가 높은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 자기조절초점, 외모에 대한 신념 및 사회 시스템 합리화 경향이 향후 사회활동 참여의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1〉 연구 1의 외모에 대한 신념, 자기대상화, 시스템 합리화경향 및 사회참여의 평균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2	3	4
1. 외모	2.493	1.008	.198*	.224**	-.203*
2. 자기대상화	-8.880	11.540		.206*	-.083
3. 시스템합리화	4.064	1.307			-.403***
4. 사회참여	1.949	1.046			

* p <.05, ** p <.01, *** p <.001

〈표 2〉 연구 1의 외모에 대한 신념, 자기대상화 및 시스템 합리화경향이 사회참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B	S.E.	β	VIF	모형 요약
외모	-.220	.137	-.209*	1.047	F = 7.019** R ² = .168 Adj.R ² = .144
자기대상화	.001	.016	.007	1.053	
시스템합리화	-.341	.078	-.403**	1.083	

* p <.05, ** p <.01

2. 연구 2

1) 자기대상화에 대한 조작점검

연구 2에서 작문과제를 통해 유도한 자기대상화가 실험조건에서 실제로 참가자의 자기대상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조건과 통제조건에서 참가자의 자기대상화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비교하였다. 참가자에게 연구 1과 동일한 자기대상화 질문지(Noll & Fredrickson, 1998)를 제시하고, 실험조건과 통제조건에 따른 자기대상화 점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조건(M = -8.24, SD = 10.39)의 자기대상화는 통제조건(M = -13.36, SD = 9.24)의 자기대상화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88) = 2.164$, $p = .034$. 또한 외모에 대한 신념도 실험조건(M = 2.824, SD = 0.806)에서 통제조건(M = 2.200, SD = 1.266)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t(88) = 3.035$, $p = .003$. 이 결과는 연구 2에서 자기대상화가 실험조작을 통해 적절하게 유도되었음을 보여준다.

2) 자기조절초점, 외모에 대한 신념, 성 불평등 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 간의 관계

연구 2에서는 참가자 개인의 성향적 자기조절초점이 실험에서 유도된 자기대상화에 따라 외모에 대한 신념, 성 불평등의 합리화 및 사회참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표 3과 같이 실험조건에서 자기대상화가 유도되었을 때, 자기조절초점, 자기대상화, 외모에 대한 신념, 시스템 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에 관한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에게서 향상초점이 예방초점보다 우세한 정도는 여학생의 사회참여 의향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308$, $p = .017$. 여학생의 향상초점이 예방초점보다 우세할수록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대상화가 유도된 조건에서 여학생 참가자가 외모에 대해 갖는 신념은 사회참여 의향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287$, $p = .026$. 여학생들이 여성의 외모를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성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의향이 더 적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여학생의 시스템합리화경향은 사회참여 의향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350, p = .006$. 이 결과는 사회의 성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참여 의향이 더 높아짐을 보여준다. 이것은 연구 1과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표 4와 같이 자기대상화가 유도되었을 때, 성향적 자기조절초점에서 향상초점이 우세한 정도, 자기대상화, 여성의 외모가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및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경향의 각 독립변인이 사회참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다중공선성 진단에 의하면,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 이하의 범위에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기조절초점, 자기대상화, 외모에 대한 신념 및 성불평등 합리화경향은 사회참여에 대해 총 26.3%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네 가지 변인은 모두 유의하게 사회참여의향을 설명하였다.

〈표 3〉 연구 2의 자기대상화 조건에서 향상초점 우세성, 외모 신념, 성 불평등 합리화경향 및 사회참여의 평균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2	3	4	5
1. 향상초점 우세성	.924	1.164	-.068	.098	-.098	.308*
2. 자기대상화	-10.91	10.07		.107	.224	-.333**
3. 외모	2.489	1.008			.236	-.287*
4. 시스템합리화	4.058	1.702				-.350**
5. 사회참여	3.119	1.523				

* $p < .05$, ** $p < .001$

〈표 4〉 연구 2에서 향상초점 우세성, 자기대상화, 외모에 대한 신념 및 시스템 합리화경향이 사회참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¹⁾

변인	B	S.E.	β	VIF	모형 요약
향상초점 우세성	.474	.183	.294*	1.058	F = 6.266*** R ² = .313 Adj.R ² = .263
자기대상화	-.034	.014	-.240*	1.049	
아름다운 외모	-.434	.210	-.240*	1.016	
시스템합리화	-.204	.114	-.231*	1.011	

* $p < .05$, ** $p < .01$, *** $p < .001$

1)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독립변인이 비올척도가 아닌 등간척도이기 때문에 각 변인의 원점이 다르다는 것,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주효과의 분석이 모호해진다는 점,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이유재, 1994), 각 독립변인이 개별적으로 종속변인인 사회참여의향을 설명하는 변량을 보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기대상화가 성 불평등과 연관된 사회 시스템의 합리화 경향 및 사회활동 참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기대상화가 유도된 실험상황에서 한 개인이 선호하는 자기조절초점이 사회의 성 불평등 합리화 경향 및 사회활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대상화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시스템의 합리화 경향이 높았으며, 사회참여는 낮게 나타났다(연구 1). 또한 자기대상화가 실험에서 작문과제를 통해 활성화되면, 참가자의 향상초점 우세성이 높을수록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낮았으며, 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사회활동 참여의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2). 이 결과는 상황적으로 여성에게 자기대상화가 유도된다고 해도, 여성의 향상초점이 예방초점보다 더 우세하면, 오히려 사회의 성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사회활동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대상화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인 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는 향상초점이 강한 여성보다는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협을 피하려고 하는 예방초점이 더 많이 활성화된 여성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 Fredrickson & Roberts, 1997)은 심리학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지난 30년간 후속연구들을 파급시켰다. 그동안 선행연구(김완석 등, 2009; 손은정, 2006; 장지원 등, 2012; Breines, Crocker, & Garcia, 2008; Kim et al., 2017; Kahalon et al., 2018)에서는 신체감시, 섭식장애, 성형수술, 우울증과 자기 대상화와와의 관계를 보고하며, 학문적 및 실제적 시사점을 보고하였다. 반면 이 연구들은 대체로 개인 내적 과정을 중심으로 자기 대상화와 신체감시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화된 여성의 인지과정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Kahalon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Fredrickson & Roberts, 1997; Kahalon et al., 2018)를 확장시켜 여성이 자기대상화를 경험하는 조건에서 자기조절초점의 개인차에 따라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정도와 불평등 감소를 위한 사회참여 의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대생의 자기대상화와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정신적 과정의 관계를 사회적 맥락에서 탐색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치중하였던 자기대상화와 개인 내적 과정 간의 관계를 개인-사회 간 상호작용으로 확장시켜, 한 개인이 사회의 성 불평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초점 이론을 자기대상화이론과 관련하여 자기대상화의 상황에서 여성의 자기조절초점에 따라 사회의 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사회활동 참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모든 여성이 자기대상화의 상황을 부

정적 사건으로만 소극적으로 경험한다기보다는 여성의 자기조절초점에 따라 성 불평등에 대한 대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한다. Sassenberg 등(2012)은 여성이 남성보다 예방초점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여 위험을 피하려 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여성이 자신 스스로를 약자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율적,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고권력집단보다는 상급자가 제시하는 규율을 따르는 저권력집단과 자신을 더 많이 동일시한다는 것에도 연관된다(Sassenberg, Jonas, Shah, & Brazy, 2007). 여성이 일반적으로 향상초점보다 예방초점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체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도전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위협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후속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자기조절초점의 차이와 조절 적합성이 다양한 불평등이 나타나는 갈등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지를 세분화하여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기조절초점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질문지 기법은 참가자가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제한점이 따른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 기법을 수정하여 참가자의 무의식적 반응을 수집할 수 있는 암목적 측정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초점을 기반으로 사회의 성 불평등과 사회 참여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라는 집단 안에서 향상초점을 선호하는 여성은 예방초점을 선호하는 다른 여성과 비교했을 때, 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사회참여 의향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유사한 상황에서도 조절초점의 차이에 따라 각자 다른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은 한 집단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후속연구에서는 자기조절초점의 차이가 같은 집단 내에서 개인과 개인 간에 상호이해와 협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대상화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의 부정적 영향은 자기조절초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학습자 스스로 추구하는 개인역량 개발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여학생들이 상승목표와 예방목표 중에서 특히 어떤 목표를 더 선호하며 추구하는지에 교수자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현재 국외 및 국내에서 전개되는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반면, 아직까지 한국의 대학교육현장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인권교육과 성불평등 인식에 대한 수업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이 자기대상화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인격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새로운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금까지 교육학분야에서는 자기대상화와 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관점을 교육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장원순, 2019). 이렇게 한 개인이 타인의 시각을 내면화하는 자기대상화의 과정에서 그 사회의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을 나약하게 소비되고 활용되는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지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립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학분야에서 여성 개인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향숙(2018). 미투운동을 통해 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소고: 몸-정신 주체, 지각, 타자성, 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9(4), 259-285.
- 김주석, 이형권(2012). 조절적합메시지가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14(4), 141-176.
- 김명옥(2017). (시대를 앞선 선각자) **최용신의 외로운 진실**. 서울: 책과 나무.
- 김완석, 박은아, & Takemoto(2009). 객체화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 자기해석의 관계: 한국, 중국, 일본 여대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23-46.
- 나은영(1995). 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경험 연구 개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33-51.
- 손은정(2006). 대상화경험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399-417.
- 성영신, 박은아, 이주원, 김운섭(2009). 아름다움의 심리적 권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0(1), 361-488.
- 양윤, 김은숙(2008). 성향 및 상황 조절초점과 과제수행 피드백이 소비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9(3), 407-433.
- 오홍석, 조한익(2014). 조절초점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45-64.
- 이경수(2018). 위드유와 자기 갱신의 윤리. **계간서경시학**, 28(3), 22-36.
- 이유재(1994).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23(4), 183-210.
- 이혜미, 김유미(2019). 초등교사의 성장 마인드셋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387-407.
- 이희은(2018). 페미니즘 운동과 미디어 윤리. **언론정보연구**, 55(1), 120-157.
- 장지원, 이지연, 장진이(2012). 여고생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형의도의 관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1), 559-577.
- 장원순(2019). 미투 운동, 구조적 인권침해 그리고 인권교육. **범과인권교육연구**, 12(1), 15-37.
- 전해정(2019). 젠더법학교육-〈성과 법률〉 수업 사례 중심으로 - **범학논총**, 31(3), 533-587.
- 정지영(2017).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형과 소

비자의 조절초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한겨레신문(2018, 10, 9). 무라드 “정의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일어설 것”.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ka/865072.html>에서 2018년 10월 30일 인출.

- Avnet, T. & Higgins, T. (2006). How regulatory fit affects value in consumer choices and opin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3(1), 1-10.
- Calogero, R. M. (2013). Objects don't object: Evidence that self-objectification disrupts women's social activism. *Psychological Science*, 24(3), 312-318.
- Calogero, R. M., Tylka, T. L., Donnelly, L. C., McGetrick, A., & Leger, A. M. (2017). Trappings of femininity: A test of the “beauty as currency” hypothesis in shaping college women's gender activism. *Body Image*, 21, 66-70.
- Custers, R., & Aarts, H. (2010). The unconscious will: How the pursuit of goals operates outside of conscious awareness. *Science*, 329(5987), 47-50.
- Forbes, G. B., Collinsworth, L., Jobe, R., Braun, K. D., & Wise, L. M. (2007). Sexism, hostility toward women, and endorsement of beauty ideals and practices: Are beauty ideals associated with oppressive beliefs? *Sex Roles*, 56(5), 265-273.
- Förster, J., & Higgins, E. T. (2005). How global versus local perception fits regulatory focus. *Psychological Science*, 16(8), 631-636.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Jost, J. T., & Kay, K. (2005). Exposure to benevolent sexism and complementary gender stereotypes: consequences for specific and diffuse forms of system jus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498-509.
- Kahalon, R., Schnabel, N., & Becker, J.C. (2018). Experimental studies on state self-objectification: A review and an integrative process model. *Frontiers in Psychology*, 9, 1-27.
- Kim, S. Y., Seo, Y. S., & Baek, K. Y. (2014). Face consciousness among South Korean women: A culture-specific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1), 24-36.
- Lockwood, P., Jordan, C. H., & Kunda, Z. (2002). Motivation by positive or negative role models: Regulatory focus determines who will best inspire 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854.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4), 623-636.
- Puvia, E., & Vaes, J. (2013). Being a body: Women's appearance related self-views and their dehumanization of sexually objectified female targets. *Sex Roles, 68*(7), 484-495.
- Sassenberg, K., Jonas, K. J., Shah, J.Y., & Brazy, P. C. (2007). Why some groups just feel better: The regulatory fit of group pow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2), 249-267.
- Sassenberg, K., Brazy, P., Jonas, K. J., & Shah, J. Y. (2013). When gender fits self-regulatory preferences: the impact of regulatory fit on gender-based ingroup favoritism. *Social Psychology, 44*(1), 550-555.
- Scholl, A., Sassenrath, C., & Sassenberg, K. (2015). Attracted to power: challenge/threat and promotion/prevention focus differentially predict the attractiveness of group power. *Frontiers in Psychology, 6*, 1-9.

* 논문접수 2019년 8월 4일 / 1차 심사 2019년 9월 7일 / 게재승인 2019년 9월 19일

* 신홍임: 서강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Trier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관심분야는 언어, 문화 및 윤리적 의사결정이다.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육중점교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shin7038@naver.com

부록. 질문지

1. 자기대상화 질문지

※ 아래에 제시된 단어를 읽으시고, 자신의 자기 개념(self concept: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0-9까지의 점수가 적힌 빈 칸에 해당 단어를 적어주십시오(0: 전혀 중요하지 않음, 9: 제일 중요함). 단, 점수는 한 개의 단어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점수를 두 개 이상의 단어에 중복하여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몸무게, 탄탄한 근육, 건강함, 힘의 세기, 체격 크기, 색시함, 활기찬 에너지 수준, 신체적 조화, 강인한 체력, 신체적 매력

0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8	9 가장 중요함

2. 시스템합리화질문지

※ 다음의 문항을 읽고, 현재 우리 사회의 남성/여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V’ 표를 기입해주시시오(1: 전혀 동의하지 않음, 9: 매우 동의함).

(1)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1-2-3-4-5-6-7-8-9
(2) 우리 사회에서 가사노동분담은 공평하다.	1-2-3-4-5-6-7-8-9
(3) 전통적인 성역할은 빨리 변화되어야 한다.	1-2-3-4-5-6-7-8-9
(4) 한국은 여성에게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1-2-3-4-5-6-7-8-9
(5) 우리 사회의 여성정책은 다수의 이득에 기여한다.	1-2-3-4-5-6-7-8-9
(6) 남성과 여성에게 부와 행복의 기회가 균등하다.	1-2-3-4-5-6-7-8-9
(7)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	1-2-3-4-5-6-7-8-9
(8) 남성과 여성은 모두 각자 이룬 성과만큼 받고 있다.	1-2-3-4-5-6-7-8-9

3. 외모 신념에 대한 질문지

※ 다음의 문항을 읽고, 문항의 내용에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V’ 표로 기입해주시시오(1: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매우 동의함).

(1) 여성에게는 예쁜 외모가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1-2-3-4-5-6-7
(2) 여성에게 가장 큰 재산은 외모다.	1-2-3-4-5-6-7
(3) 예쁘지 않은 여성은 타인의 존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1-2-3-4-5-6-7
(4)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 여성이 다른 것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1-2-3-4-5-6-7
(5) 여성은 대체로 능력보다는 매력으로 성공한다.	1-2-3-4-5-6-7

4. 사회참여 질문지

※ 다음의 문항을 읽고, 최근 6개월 동안 자신이 아래의 다양한 활동에 참가한 정도를 ‘V’ 표로 기입해주시시오(1: 전혀 참가하지 않음, 7: 언제나 참가함).

(1) 우리 사회의 성차별에 관해 친구와 함께 토론함.	1-2-3-4-5-6-7
(2) 성평등의 주제를 다루는 워크숍이나 강연에 참가함.	1-2-3-4-5-6-7
(3) 성차별 금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서명함.	1-2-3-4-5-6-7
(4) 여성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에 참가함.	1-2-3-4-5-6-7
(5) 성평등에 관한 자료를 배포함.	1-2-3-4-5-6-7
(6)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위에 참가함.	1-2-3-4-5-6-7
(7) 성평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함.	1-2-3-4-5-6-7
(8) 여성의 권리옹호 캠페인에 참여함.	1-2-3-4-5-6-7

Abstract

Self-objectification, Self-regulatory Focus and Social Engagement of Women*

Shin, Hong-Im**

Self-objectification is defined as treating oneself as objects. Women view themselves through the perspective of an observer not as a whole existence, but as an usable object (i.e. fac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elf-objectification, self-regulatory focus and social engagement of women. Study 1 (N=160) tested the question whether self-objectification is associated with gender specific system justification and social eng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higher tendency of self-objectific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engagement of female students. In Study 2 (N=90), female students had to indicate a questionnaire for self-regulatory focus. After that, they were instructed to perform a writing task about a cosmetic surgery to induce the state of self-objectification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In addition, they completed survey questionnaires, which were same as those of Study 1. According to the results, higher scores of promotion focus dominance were related to the lower scores of self-objectification and system justification. In contrast, the promotion focus domina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igher tendency of social activism among female students. These results implicated that differences in the regulatory fit may explain the reason why some women in the sexually objectified situation prefer rejecting to follow conventional rules for women and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sm to justifying gender inequality.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regulatory fit theory for better understanding self-objectification and gender behavior in social context.

Key words: Women, Self-objectification, Self-regulatory focus, System justification, Social engagement

* The author thanks the reviewers for constructive feedback.

**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shin7038@naver.com